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국제비교*

윤 자 영**

I.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시간당 임금수준의 증가폭, 일자리 안정성, 사회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새롭게 창출되는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직종 위계 서열에서 낮은 지위를 점하는 가운데, 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윤자영 외, 2012). 이 글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인력구성, 임금 수준, 정규직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돌봄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불이익/이익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 근로조건의 특성을 복지국가별 특징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윤자영 외(2011)의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I)』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했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ayoungy@kli.re.kr).

II.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1. 분석 자료와 방법

OECD 국가들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Luxembourg Income Study(LIS) 5차(2000년), 6차(2004-2005년) 웨이브를 사용했다. LIS는 가구단위 조사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합(harmonize)하고 있다. LIS 조사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국가는 첫째,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세하게 직종 및 산업 변수를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돌봄노동의 수요 및 공급, 근로조건에 관한 정책적 전략의 특징과 시장의 발전 정도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선별했다. 둘째 조건과 관련해서는 복지국가를 유형화한 기존 연구들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가들을 범주화했다. 북유럽에 포함되는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대륙유럽에 포함되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자유주의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는 헝가리, 체코, 러시아, 가족주의 국가는 멕시코, 타이완, 한국이다. 벨기에와 러시아는 6차년도 자료가 없으나 다양성 확보를 위해 5차년도 자료를 사용했다. 한국 자료는 이들 대다수 국가와 시기적으로 비슷한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2005) 자료를 사용했다.

본고에서 분석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은 ①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일대일 대면 접촉을 통한 인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② 수혜자의 역량(capabilities)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수혜자의 발달, 배움, 숙련형성, 신체 및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전통적인 돌봄 직종인 교육과 의료산업의 전문가 수준(의사, 간호사, 교사 등)의 직종과 후기 산업사회에서 등장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필요에 따라 비전문직 돌봄서비스나 사회적 돌봄에 해당하는 보건/사회복지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이 사회적 돌봄에 해당한다. 돌봄서비스에 포함되는 직종을 대략 살펴보면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보조원, 개인서비스근로자, 의료인 등이다. LIS에 포함된 국가별 조사에서 직종별 코드를 구분해 놓은 수준이 다양했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종뿐만 아니라 산업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국가 간 비교 가능하도록 좁은 범위에서 정의하고자 했다. 즉 돌봄서비스 산업에 속한 돌봄서비스 일자리만을 포함시켰

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포함된 산업으로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민간 가정고용인, 개인서비스, 공공행정이다.

2. 돌봄서비스 인력 구성

가. 돌봄서비스 일자리 인력구성

<표 1>은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인력구성의 국가 간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북유럽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 근로자 비중이 16~22%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대륙유럽 국가 가운데 벨기에도 20.59%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 근로자 비중에서 북유럽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륙유럽 국가들은 내부의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독일·네덜란드가 비슷하고,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앞의 국가들보다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 비중이 다소 낮다. 그러나 대륙유럽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북구 사민주의 국가보다는 낮고 북미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높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여성의 돌봄노동 책임을 강조하면서 수당이나 현금급여 등을 제공하는 국가들에서 돌봄서비스 인력의 규모가 대체로 작은 듯 보인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북미 자유주의 국가에 보다 근접한 듯 보이는데,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이념으로 삼고 있었지만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대략 북미 지역과 비슷하다. 멕시코와 타이완도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낮다.

전체 근로자 중 돌봄 직종 종사자의 비중과 여성 중 돌봄 근로자 비중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한국은 여성 중 돌봄 직종 비중이 19.92%로 북유럽, 헝가리를 제외한 구사회주의권,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대륙유럽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 비중에서 미국보다 낮지만 여성 중 돌봄 노동자 비중은 미국보다 더 높다. 대다수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여성 비중이 전체 근로자 중 돌봄 직종 비중의 2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스트리아·체코·멕시코 등과 함께 2배 가까이 혹은 그 이상에 이르고 있다. 즉 전체 일자리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현격하게 높은 비율로 여성고용이 돌봄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다.

여성고용의 증가와 돌봄서비스 직종 자체의 확대도 무관하지 않다. 가족이 무급으로 전담하던 돌봄서비스, 특히 보육과 간병 등 사회적 돌봄을 공공화하면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돌봄의 부담을 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반드시 이 둘의 관계가 선형적이지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근로자의 여성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 근로자 중 돌봄 직종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구사회주의권 가운데 헝가리(52.79%)와 러시아(49.54%)는 여성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지만 돌봄서비스 근로자 비중은 낮다. 사회적 참여에서 남녀 동등한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의적 이념과 정책의 유산으로 여성 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자체의 확대를 동반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전체 근로자의 돌봄 직종 비중은 가족주의 모델 국가인 멕시코·타이완·한국 등을 제외하면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과 비슷하다.

<표 1>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인력구성

(단위: %)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 직종 비중	전체 여성 가운데 돌봄 근로자 비중	전체 남성 가운데 돌봄 근로자 비중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여성 비중	전체 돌봄 근로자 가운데 여성 비중	여성 고용률	전체 돌봄 가운데 사회적 돌봄 종사자 비중
<북유럽>							
핀란드(2004)	16.18	28.94	4.81	47.11	84.27	57.48	53.69
스웨덴(2005)	21.89	35.38	9.96	46.94	75.87	68.32	61.73
덴마크(2004)	20.38	33.47	8.35	47.88	78.65	66.10	62.02
<대륙유럽>							
벨기에(2000)	20.59	33.33	9.89	45.65	73.90	51.37	50.66
프랑스(2005)	13.35	23.50	4.35	47.00	82.72	57.52	61.95
독일(2004)	13.15	21.24	5.83	47.49	76.71	55.24	23.99
네덜란드(2004)	13.06	21.67	6.26	44.11	73.19	48.81	48.80
오스트리아(2004)	9.93	17.62	4.13	42.96	76.26	57.35	57.24
룩셈부르크(2004)	10.03	13.78	6.36	49.42	67.94	85.17	41.66
<북미>							
미국(2004)	11.22	19.06	4.48	46.22	78.52	62.06	25.96
캐나다(2004)	10.25	17.37	4.13	46.18	78.29	67.02	32.76
<구사회주의권>							
헝가리(2005)	10.14	15.00	4.73	52.79	77.95	84.25	56.60
러시아(2000)	12.81	22.71	3.09	49.54	87.82	56.35	37.49
체코(2004)	11.01	21.35	3.16	43.14	83.69	53.83	43.10
<기타>							
멕시코(2004)	8.91	17.75	3.64	37.40	74.45	43.24	43.51
타이완(2005)	9.59	14.38	6.01	42.73	64.08	52.35	54.06
한국(2005)	10.86	19.92	4.63	40.74	74.74	43.05	31.43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5~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북유럽과 북미는 여성 근로자 비중이 서로 비슷하지만 돌봄 근로자 비중은 북유럽이 훨씬 높고, 돌봄 근로자 비중에서 북미 국가들은 북유럽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권을 시민권의 근간으로 보고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북유럽이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 북미 국가들이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지만, 여성이 담당하던 돌봄이 ‘일자리’의 형태로 직종화되었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서 북유럽은 전자를,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은 후자를 지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타이완·멕시코에서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중은 북미 국가보다 크게 낮아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지만 전체 근로자의 돌봄 직종 비중은 그들보다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보건·사회복지와 기타 서비스업의 비전문직 일자리를 사회적 돌봄 일자리로 정의하고 국가 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이 사회적 돌봄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북미 자유주의 국가가 가장 낮다. 한국(31.43%)도 미국(25.96%)·캐나다(32.76%)와 더불어 전체 돌봄서비스 일자리 가운데 사회적 돌봄 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보수주의 대륙유럽 국가인 독일의 사회적 돌봄 일자리도 23.99%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직종의 공공민간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표 2>에서는 각 범주별로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과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여성 비중을 제시하였다. 돌봄서

<표 2> 돌봄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

(단위: %)

	전체		돌봄 전체		비돌봄 전체		돌봄 전문가		돌봄 비전문가		돌봄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비중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비중	여성 비중
핀란드(2004)	30.80	72.49	85.85	85.02	20.17	62.19	96.83	71.61	80.08	93.54	0.38	0.00	90.32	93.27
스웨덴(2005)	22.41	72.56	89.47	75.57	3.39	47.79	92.67	61.32	88.72	79.05	93.35	29.78	90.62	79.09
벨기에(2000)	30.70	54.28	57.34	72.31	23.79	43.03	67.07	43.81	56.24	75.76	16.28	74.26	30.74	90.25
프랑스(2005)	25.19	57.80	41.90	73.09	22.60	53.41	0.00	0.00	43.58	73.09	5.39	93.97	26.30	81.52
독일(2004)	24.69	55.13	62.90	74.09	18.64	45.00	73.54	69.61	45.20	86.25	12.68	13.56	45.26	83.63
미국(2004)	14.68	56.39	38.19	76.21	11.71	48.21	45.82	73.43	22.02	88.47	0.00	0.00	8.30	85.14
캐나다(2004)	18.99	58.28	61.43	76.43	14.14	49.27	81.87	73.93	32.67	85.24	0.00	0.00	19.78	77.98
헝가리(2005)	17.44	64.05	50.60	83.67	13.68	55.82	63.64	81.30	50.07	83.79	16.66	15.73	41.16	85.21
러시아(2000)	72.16	53.60	95.99	88.27	68.20	45.47	96.25	86.14	95.86	89.40	96.13	95.58	97.56	89.06
타이완(2005)	9.79	45.30	28.37	61.54	7.82	39.06	52.94	68.89	11.30	37.64	7.25	17.52	8.68	26.98
한국(2005)	9.98	36.78	21.14	61.71	8.62	29.33	39.03	59.08	4.91	80.70	0.00	0.00	3.32	66.89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5~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돌봄서비스 직종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높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공공부문 비중이 역시 가장 높고 한국은 21.14%로 가장 낮다. 사회적 돌봄에 해당하는 비전문직 보건·사회복지와 기타 서비스업을 보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90%가 공공부문에 속해 있는 반면, 미국은 8.3%, 한국은 3.3%만이 공공부문에 속해 있다.

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 수준

다음으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주당 근로시간 자료가 없는 북구 사민주의 국가(핀란드·스웨덴·덴마크)와 타이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 없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이나 연간 소득 자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시한다.

다음 <표 3>은 국가별 임금을 구매력평가 기준 임금 수준으로 환산하여 국가 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을 절대적 수준에서 제시, 비교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구매력 평가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룩셈부르크·미국·네덜란드·독일·오스트리아·캐나다·한국 순으로 높다. 한국은 시간당 11.3달러로 벨기에와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과

<표 3> 구매력평가 기준 시간당 임금 수준

(단위 : 달러)

	비돌봄 전체	돌봄 전체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벨기에(2004)	8.0	8.1	15.3	7.5	14.8	5.8	3.2	5.1
프랑스(2005)	9.8	9.4	13.6	9.3	12.2	10.4	6.8	8.3
독일(2004)	13.8	14.7	17.3	11.2	17.7	13.7	7.5	10.1
네덜란드(2004)	14.6	16.2	19.2	13.8	18.8	16.4	6.0	13.9
오스트리아(2004)	10.5	14.7	21.4	12.0	22.1	14.2	7.8	11.5
룩셈부르크(2004)	18.0	26.2	35.2	20.4	34.9	20.5	16.1	20.4
미국(2004)	15.9	17.1	22.6	9.3	18.0	16.8	8.5	9.2
캐나다(2004)	10.0	12.7	16.6	8.7	17.0	10.5	6.9	7.9
헝가리(2005)	2.3	3.7	6.8	3.6	4.8	3.0	2.8	3.0
체코(2004)	4.4	4.6	5.3	3.9	6.2	4.1	1.5	3.9
러시아(2000)	0.5	0.4	0.6	0.4	0.5	0.5	0.2	0.3
멕시코(2004)	1.4	2.6	3.9	2.5	4.6	2.7	1.3	1.4
한국(2006)	9.6	11.3	13.3	9.6	13.5	9.1	7.6	7.5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북미 국가들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고 구사회주의권과 멕시코보다는 높다. 가장 속련 수준이 낮고 일자리의 질이 낮은 기타 서비스업에서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7.6달러였으며, 룩셈부르크·미국·오스트리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사회적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은 7.5달러로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국가보다도 낮다.

다음으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일자리로 정의하고 국가별 돌봄 직종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자. <표 4>는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저임금 일자리 비중을 계산하였다. 한국(21.71%)은 미국(26.60%)과 러시아(31.28%) 다음으로 돌봄 직종의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다. 대륙유럽 가운데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대략 20% 정도, 멕시코가 20.15%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돌봄 직종의 위계 서열에서 아래에 위치한 일자리인 기타 서비스 산업에 한정해서 보면, 대륙유럽 국가에서도 그들의 상당수가 저임금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돌봄 직종의 저임금근로 비중의 남녀 차이를 살펴보자. 한국 여성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는데, 25% 즉 네 명 중 한 명이 저임금근로자다.

<표 4> 시간당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일자리 비중

(단위: %)

	임금 형태	전체	돌봄 전체	비돌봄 전체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돌봄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핀란드(2004)	연소득	20.55	16.78	21.28	6.37	22.26	80.47	12.77
스웨덴(2005)	연소득	25.64	22.72	22.90	11.72	25.29	8.89	23.85
덴마크(2004)	연소득	21.05	19.73	21.39	9.12	24.16	17.65	20.78
벨기에(2000)	시간당	13.82	13.10	14.01	5.08	14.32	41.64	20.77
프랑스(2005)	시간당	11.24	19.85	9.91	2.30	20.56	37.84	26.91
독일(2004)	시간당	23.61	19.58	24.20	10.09	35.17	67.90	37.07
네덜란드(2004)	시간당	16.99	12.97	17.59	10.56	15.22	59.56	13.94
오스트리아(2004)	시간당	20.01	12.33	20.86	3.71	16.81	32.73	17.57
룩셈부르크(2004)	시간당	19.99	13.40	20.73	5.76	19.68	43.23	22.71
미국(2004)	시간당	26.94	26.60	26.99	12.93	55.59	53.34	54.20
캐나다(2004)	시간당	30.91	17.88	32.40	9.19	30.11	51.38	35.00
헝가리(2005)	시간당	7.38	4.43	7.72	0.00	4.61	12.23	6.45
체코(2004)	시간당	20.50	13.69	21.34	6.71	20.75	63.44	19.68
러시아(2000)	시간당	35.00	31.28	35.55	22.31	35.93	63.02	43.02
멕시코(2004)	시간당	31.74	20.15	32.87	10.86	21.40	38.37	36.39
타이완(2005)	연소득	28.52	29.11	28.45	9.42	42.78	42.19	42.76
한국(2005)	시간당	26.01	21.71	26.53	10.90	31.53	46.04	43.39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5~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반면 남성 돌봄 직종 종사자의 저임금근로 비중은 10% 정도에 그치며, 대부분의 대륙유럽과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한국에서 저임금 돌봄 직종 일자리의 대부분이 여성 일자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성

일자리의 정규직 비중은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표 5>는 돌봄 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을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LIS 자료에서 ‘permanency of contract’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변수를 사용하여 정규직 변수를 구축했다. 계약 상태가 ‘영구적’이거나 ‘기한이 없음’을 정규직으로 간주하였다.

대체적으로 멕시코를 제외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다. 공공부문 비중이 높은 러시아와 헝가리는 정규직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륙유럽 국가

<표 5>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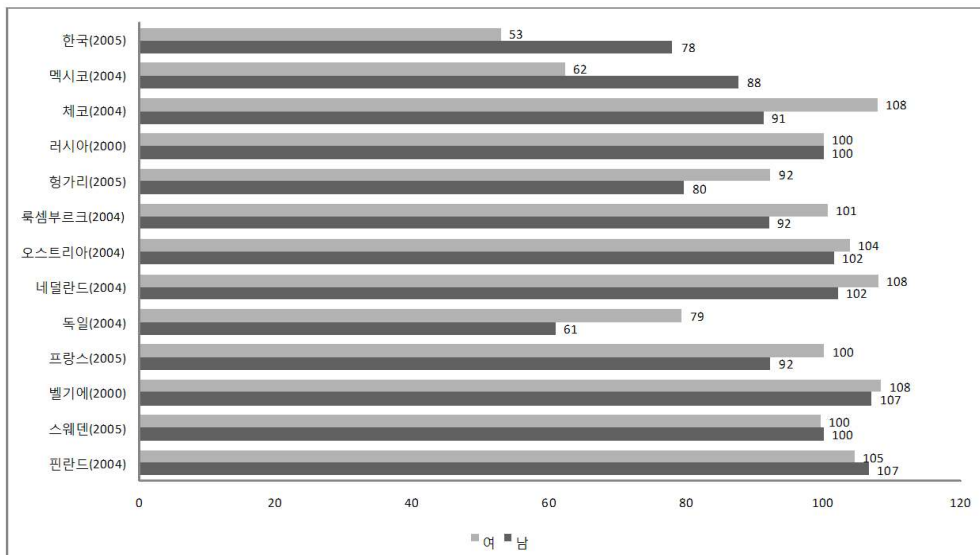
	전 체		돌 보		비돌봄		돌봄 전문직		돌봄 비전문직		기타 서비스		사회적 돌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북유럽>														
핀란드(2004)	89.97	86.70	77.70	82.84	90.65	88.32	76.08	80.32	81.20	83.98	-	89.66	79.46	85.21
스웨덴(2005)	89.37	86.69	84.93	86.18	90.39	87.47	84.92	86.45	84.94	86.13	87.94	84.50	84.72	86.33
<대륙유럽>														
벨기에(2000)	94.22	88.59	81.61	85.52	95.47	90.29	77.53	87.91	83.03	95.33	100.0	87.56	77.62	88.93
프랑스(2005)	89.05	85.80	88.73	84.33	89.07	86.26	95.60	84.24	88.13	84.33	91.69	81.61	91.86	83.75
독일(2004)	77.70	77.04	68.96	79.20	78.24	76.46	78.20	86.12	47.56	68.23	100.0	65.52	80.07	80.43
네덜란드(2004)	91.60	88.56	95.63	92.01	91.31	87.16	95.12	87.77	97.22	94.84	100.0	96.62	96.91	94.88
오스트리아(2004)	81.18	86.72	94.44	93.51	80.58	85.21	93.63	91.16	95.07	94.62	100.0	96.03	94.21	95.40
룩셈부르크(2004)	90.95	82.46	86.28	85.69	91.26	81.94	88.88	85.30	81.77	85.90	100.0	83.72	100.0	89.78
<구사회주의권>														
헝가리(2005)	80.28	86.06	80.26	92.62	80.28	84.51	100.0	100.0	79.59	92.23	65.94	100.0	73.01	93.48
러시아(2000)	96.18	96.80	100.0	100.0	96.05	95.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체코(2004)	86.54	84.14	84.28	86.25	86.63	83.56	85.67	82.70	78.19	89.20	100.0	80.33	84.18	88.95
<기타>														
멕시코(2004)	37.76	43.91	71.21	40.74	36.30	44.91	79.81	62.67	69.89	38.93	25.12	6.26	34.19	11.00
한국(2005)	76.60	63.18	89.86	71.20	75.98	60.89	96.35	93.00	75.03	49.11	44.23	10.86	73.39	43.21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5~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중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에서는 독일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다. 성별 차이에서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정규직 비중의 남녀 격차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일자리 안정성에서 한국의 돌봄 직종은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멕시코와 한국은 위계 서열에서 하위로 놓인 일자리일수록 정규직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국가다.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안정성은 숙련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전문 돌봄직의 정규직 비중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을 보면, 한국·멕시코·독일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숙련 수준에 따라 일자리 안정성의 차이가 크다. 즉 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을 100%로 보았을 때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은 여성은 53%, 남성은 78%에 불과하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와, 독일을 제외한 대륙유럽 국가에서 전문직과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1] 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정규직 비중(성별)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III.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 불이익

이 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에 대해 분석한다.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근로자의 인적자본과 일자리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돌봄서

비스 직종의 임금 수준이 관찰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고도 전반적으로 다른 비돌봄 직종에 비해서 낮다고 주장해 왔다. 즉 유사한 특징을 가진 직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노동자가 단지 돌봄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돌봄 직종 근로자가 임금 불이익(wage penalty)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차이에는 관측되는 차이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내재한 문화적 저평가와 서비스의 질과 임금과의 연계가 힘들다는 돌봄서비스 자체의 특성이 포함된다. 어떤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노동시장 특성은 이러한 관측되지 않는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일자리 특성, 직종과 산업의 성별 비중 등을 통제하고도 발생하는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차이를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했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이 비돌봄 직종에 비해 임금 불이익/이익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이민자 여부, 장애 여부, 기혼 여부, 출산 여부 등 인구학적 특성, 연령과 교육수준의 인적자본, 단시간근로 여부, 전문가 여부, 자영업 여부 등 일자리 특성, 직종과 산업의 성별 비중, 일자리의 공공부문 여부를 통제하여 임금결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로 ① 전체 돌봄서비스를 아우르는 직종, ② 비전문가 돌봄서비스, ③ 사회적 돌봄(비전문가 수준의 보건·사회복지와 기타 서비스업 돌봄서비스 직종)과 같이 범위를 좁혀 돌봄서비스 직종을 정의하고 임금 불이익/이익에서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는지 살펴보았다. 종속변수가 로그임금이므로 돌봄서비스 직종 변수의 계수는 돌봄서비스 직종이 비돌봄직종에 비해 겪는 임금 불이익/이익 정도(%)로 해석된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국가 간 차이를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 불이익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여성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이익이 존재했다. 대륙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 불이익이 있었고,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는 임금 이익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임금 불이익이 존재했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 중 헝가리와 체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컸다. 멕시코와 타이완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있었는데 반해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 직종 간의 임금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임금 불이익/이익에는 남녀의 차이도 존재했다. 스웨덴은 여성의 경우 1% 정도

의 임금 이익이 있었지만 남성의 경우 돌봄서비스 직종에 11%의 불이익이 존재했다.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도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임금 불이익/이익이 없었지만 남성은 9%의 임금 불이익을 경험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반면, 남성에게는 오히려 임금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에게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았다. 멕시코·타이완·한국에서는 절대값은 작지만 남성이 돌봄서비스 직종을 택했을 때 임금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 가운데서도 비전문직이나 사회적 돌봄 일자리는 임금 불이익을 더욱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자리에 대해서만 임금 불이익/이익을 분석한 결과, 전체 돌봄서비스에 대해 분석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가운데 임금 불이익이 있었던 국가들의 경우 그 크기가 더욱 커졌다.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의 경우 관측가능한 차이를 통계하고 난 후에 경험하는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앞서 모든 돌봄서비스 직종에 대

<표 6>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

	남성			여성		
	전체 돌봄서비스	비전문가 돌봄서비스	사회적돌봄	전체 돌봄서비스	비전문가 돌봄서비스	사회적돌봄
핀란드(2004)	6	5	6	7	9	11
스웨덴(2005)	-11	-10	-7	1	4	7
덴마크(2004)	-9	-8	-8	0.1	-0.4	0.8
벨기에(2000)	-2	6	-12	5	6	-4
프랑스(2005)	4	8	3	-4	-3	-11
독일(2004)	13	6	13	17	14	9
네덜란드(2004)	12	6	17	-7	4	4
오스트리아(2004)	-15	-10	-13	12	8	6
룩셈부르크(2004)	7	4	16	16	14	18
미국(2004)	3	-16	-11	-12	-14	-7
캐나다(2004)	4	9	11	-6	-7	-13
헝가리(2005)	4	4	12	2	2	-0.7
체코(2004)	-6	-17	-15	-0.5	0.9	0.6
러시아(2000)	-18	-14	-21	-21	-27	-34
멕시코(2004)	-10	-14	-50	-30	-33	-74
타이완(2005)	-13	-20	-18	-17	-14	-14
한국(2005)	-3	-11	-5	0.3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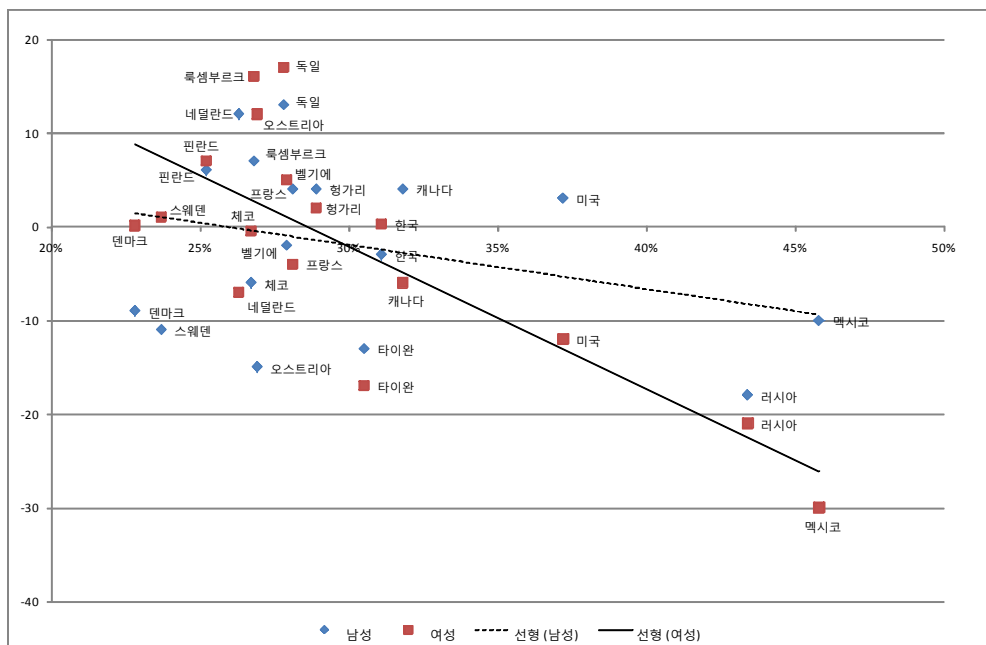
주: 굵은 글씨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5~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해 추정한 결과와 달리 비전문직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돌봄 일자리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한국에 여성들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 11%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의 크기가 러시아·멕시코·타이완 등보다 작지만 캐나다·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성이 시장노동을 할 것이냐 돌봄노동을 할 것이냐 선택을 인정하는 벨기에와 프랑스를 제외한 대륙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돌봄의 임금 불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없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임금 이익이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불이익/이익은 노동시장 특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감소하며 임금 이익은 증가한다. 이러한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과 소득불평등



자료 : Luxembourg Income Study 5~6차; 「한국노동패널」 8차년도.

IV. 맺음말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일자리의 근로조건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구 사민주의 국가 등에서 사회적 돌봄서비스 인력 비중과 함께 여성 고용률이 높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인력의 양성과 재배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높다. 둘째,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가운데 비전문직이나 사회적 돌봄의 근로조건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이들 직종의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했다는 사실은, 돌봄서비스 공급과 인력 양성을 시장에 맡기는 체계는 비전문직이나 사회적 돌봄 직종을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 북미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 돌봄의 임금 불이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없었고 북구 사민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임금 이익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면, 이 직종에 대한 저평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립**